

1세기 로마교회의 '다스리는 자'(로마서 12장 8절)

-그리스-로마 사회의 자발적 조합 관점에서-¹⁾

이상목*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로마교회의 은사인 '다스리는 자'(ὁ προϊστάμενός, 롬 12:8)를 그리스-로마 사회의 자발적 조합(voluntary association)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것은 자발적 조합 모델을 로마서에 적용하여 로마교회의 상황과 바울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연구로서 조합 모델의 유용성을 로마서 연구를 통해 시험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초기 교회가 당시 자중해 세계에서 활발하였던 자발적 조합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자발적 조합은 교회의 형성 오래전부터 사회의 통합과 사회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고, 1세기 교회의 조직 및 운영은 자발적 조합과 유사한 점을 지녔다. 물론, 교회만의 독특한 성격이나 새로운 변화가 있었지만, 자발적 조합과 교회의 유사성은 당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연스러웠다. 연속성과 비연속성은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공존하는 특성이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열거하는 일곱 개의 은사는 이러한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들 은사 중 '다스리는 자'를 자발적 조합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다스리는 자'에 논의를 집중하는 이유는 일곱 은사를 모두 고찰하는 것이 소논문의 범위를 벗어나고 '다스리는 자'가 그리스-로마 사회

* 평택대학교 연구교수, 신약학

1) 이 논문은 2019학년도 평택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의 조합과 로마교회의 연속성을 더욱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자발적 조합의 관점에서 초기 교회를 고찰하는 연구의 흐름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자발적 조합의 관점에서 로마교회를 설명하는 연구가 아직은 미진한 상황에서 해당 관점을 사용한 초기 교회 연구의 지평을 넓힌다는 면에서 시도할만한 연구라 할 수 있다.

2. 자발적 조합은 타당한 관점인가?

그리스-로마 사회의 자발적 조합(voluntary association)은²⁾ 아직 국내 신학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분야이지만³⁾ 서구 신약 및 초기 기독교학계에서는 중요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았다. 자발적 조합은 20세기 초반부터 가정(household), 유대교 회당 및 철학/수사학 학교(philosophical/rhetorical school)와 함께 초기 교회 연구를 위한 해석학적 모델로 제시되었다. 믹스(Wayne A. Meeks)는 자발적 조합과 초기 교회 사이의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후자는 전자를 모델로 하여 형성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도 했지만,⁴⁾ 많은 후속

2) 영어권 학계에서 널리 사용하는 용어 association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활발했던 사회조직을 지칭한다. 그러한 사회조직을 이르는 용어는 매우 다양했지만, 영어권에서는 association을 그것을 위한 용어로 사용한다. 국내 신학학계에서는 association을 ‘조합’으로, voluntary association은 ‘자발적 조합’으로 옮겨 사용한다. 이러한 번역은 현대 사회의 조합·가령, 노동조합이나 영농조합과 같은-을 연상시키는 문제가 있으나, 고대와 현대의 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자발적 단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조합’을 사용한다.

3)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검색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조합과 초기 교회를 다룬 연구로는, 국내 학술지의 경우, 두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중 하나는 외국 학자의 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국내 연구결과는 한 편에 그친다(검색어 “voluntary association and early church,” 2021년 2월 23일 검색). 검색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박영호, “초기 교회 직제의 지역적 다양성에 관한 연구,” 『신약논단』 22 (2015), 1081-1122; Bradley H. McLean/양형주 역, “Agrippinilla 비문: 종교적 모임(Associations)들과 초기교회 형성,” 『개혁주의 이론과 실천』 7 (2014), 171-198.

4) Wayne A. Meeks, *The First Urban Christians* (New Haven: Yale Univ. Press, 1983), 77-80.

연구는 새로운 사료, 특히 명문(inscription)과 파피루스 기록에 주목하여 므스가 강조한 차이점이 실제로 크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조직의 형성과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자발적 조합과 초기 교회의 연속성을 성공적으로 논증하였다. 바르톤(S. C. Barton)과 호슬리(Greg H. R. Horsely)는 헬레니즘 시대의 종교 조합들(cult associations)과 신약성서 교회들의 유사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⁵⁾ 말허비(Abraham J. Malherbe)는 바울의 활동 무대가 자발적 조합이었을 가능성을 논증하였다.⁶⁾ 아스코프(Richard Ascough)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뛰어넘는 일련의 연구들을 발표하였다. 그는 자발적 조합을 신약시대 교회 연구를 위한 모델로 사용하여 바울을 따르는 교회들과 마태공동체에 관한 독창적인 결과들을 발표하였다.⁷⁾ 최근 아스코프 외에도, 클로펜보르크(John S. Kloppenborg), 하랜드(Philip A. Harland), 라스트(Richard Last) 등이 활발한 연구를 통해 초기 교회의 사회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공헌하였다.⁸⁾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리스-로마 사회에서 활발하였던 자발적 조합은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서 1세기 기독교 공동체의 형성 및 운영과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자발적 조합이라는 관점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사회적 성격과

5) Stephen C. Barton and Greg H. R. Horsley, "A Hellenistic Cult Group and the New Testament Churches," *Jahrbuch für Antike und Christentum Münster* 24 (1981), 7-41.

6) Abraham J. Malherbe, *Paul and the Thessalonians: The Philosophic Tradition of Pastoral Care* (Philadelphia: Fortress, 1987).

7) 가령, Richard S. Ascough, *What Are They Saying About the Formation of Pauline Churches?* (New York: Paulist Press, 1998).

8) 연구서만 일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John S. Kloppenborg, *Christ's Associations: Connecting and Belonging in the Ancient City* (New Have: Yale Univ. Press, 2019); John S. Kloppenborg, and Stephen Wilson, eds. *Voluntary Associations in the Greco-Roman World* (New York: Routledge, 1996); Philip A. Harland, *Associations, Synagogues and Congregations: Claiming a Place in Ancient Mediterranean Society* (Minneapolis: Fortress, 2013); idem, *Dynamics of Identity in the World of the Early Christians* (New York: T&T Clark, 2009); Richard Last, *The Pauline Church and the Corinthian Ekklesia: Greco-Roman Associations in Comparative Context*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2016).

조직 및 운영에 관해 연구하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산출하였고, 이후로도 초기 교회에 대한 사회사적 이해를 확장하고 심화할 것으로 기대된다.⁹⁾

상술한 연구 흐름 속에서 신약시대의 교회를 그리스 로마 사회의 자발적 조합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방법론에 대한 반대나 경계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자발적 조합의 관점이라는 방법론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였다. 에크하르트(Bendikt Eckhardt)는 초기 교회가 내부와 외부 모두로부터 자발적 조합-collegia, *hetaeria*, *ἐταιρεία*, *θίασοι* 등의 용어로 지칭되는-으로 인식되었다는 이해에 반론을 제기한다.¹⁰⁾ 그의 주장에 따르면, 많은 초기 기독교 연구자가 위의 통념을 위한 근거로 사용하는 플리니(Pliny), 루시안(Lucian), 켈수스(Celsus), 터툴리안(Tertullian) 등의 문헌은 곡해되었으며, 이들 문서자료는 동시대인들이 교회를 자발적 조합으로 이해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가령, 비티니아 총독 플리니가 교회를 헤타이리아(*hetaeria*)로¹¹⁾ 인식했으며 헤타이리아는 조합(association)을 의미한다는 많은 연구자의 설명은 플리니의 서신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은 결과라고 에크하르트는 주장한다.¹²⁾ 그의 연구에 따르면, 플리니는 헤타이리아에 대한 금지 명령을 교회에 적용하지 않았고, 교회는 단지 정치적인 오해를 사 당국의 탄압을 받지 않기 위해 저녁 시간의 모임과 공동식사를 중지하고 새벽

9) 최근 유(Yuh)는 히브리서 연구에 자발적 조합을 모델로 사용하여 새로운 해석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해석학적 모델로서 자발적 조합이 지닌 학문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Jason N. Yuh, "Abandonment and Absenteeism in the Letter to the Hebrews and Greco-Roman Associations," *JBL* 138 (2019), 863-882.

10) Benedikt Eckhardt, "Who Thought That Early Christians Formed Associations?" *Mnemosyne: A Journal of Classical Studies* 71 (2018), 298-314.

11) *Hetaeria*(또는 *hetaeriae*)는 헬라어 명사 *ἐταιρεία*를 음역한 라틴어 단어로서 플리니의 편지에 복수형태(*hetaeriae*)로 등장한다(Pliny *Ep.* 10.96.7). 헤타이리아는 '비밀 단체'(secret society) 또는 '정치적 조합/단체'(political association/society)로 옮기기도 한다. 이는 비밀성과 정치성이 헤타이리아의 특징임을 반영한 번역이다. 다음을 보라. Pliny, *Letters* Book 10(<http://www.attalus.org/old/pliny10b.html#96>). 2020년 2월 23일 검색; Pliny, *Letters* 10.96-97(<https://faculty.georgetown.edu/jod/texts/pliny.html>). 2020년 2월 22일 검색. 본 연구는 *hetaeria*를 번역하지 않고 음역한다.

12) Eckhardt, "Who Thought That Early Christians Formed Associations?" 300-302.

모임만을 유지하였다(*Ep.* 10.96.7). 총독은 자신의 금지 명령을 기점으로 교회의 오후 회합과 공동 식사가 중지되었다고 기술하지만, 이것은 그가 교회를 정치적 성격을 지닌 자발적 조합으로 판단하였음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는다. 플리니는 크리스천들의 모임이 해가 없고 오히려 건전한 윤리 실천을 강조했다고 기술한다. 그는 교회 모임에서 명확한 정치적 성격 또는 정치적 위험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총독의 금지 명령이 교회에도 적용되었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고 에크하르트¹³⁾는 설명한다. 또한 헤타이리아가 자발적 조합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가 될 수 없으며 특정한 성격-특히 정치적인-을 띠는 단체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¹³⁾ 에크하르트의 연구에 따르면, 플리니가 교회의 오후 회합 및 공동 식사 중지를 헤타이리아 해산 명령과 연결하여 서술하는 이유는 황제의 지침에 충실한 자신의 금지령 때문에 교회 모임이 축소되었다는 인상을 황제에게 심어주기 위함이다.¹⁴⁾ 이는 자신의 충성스러움과 뛰어난 업무능력을 선전하기 위한 플리니의 의도를 담은 서술이다. 총독은 크리스천들의 모임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자신의 행정명령이 혹사나 모를 교회의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황제에게 보고한다.

상술한 에크하르트의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플리니의 문헌을 근거로 하여 로마 당국이 교회를 자발적 조합으로 인식했으며 이러한 역사적 근거 위에서 교회를 자발적 조합의 범주에 포함하여 탐구하는 연구방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혹자는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플리니의 행정 서신에 대한 에크하르트의 해석은 반론의 여지가 있다. 우선, 교회의 저녁 모임 및 식탁 교제 중지 시점에 관한 플리니의 보고를 보자. 그는 황제에게 “내가 황제 폐하의 지침을 따라 모든 헤타이리아를 금지하는 명령을 선포한 후, 그들[i.e.,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행위[i.e., 저녁 회합과 공동 식사]를 중지하였습니다”라고 적는다.¹⁵⁾ 교회의 모임 축소가 자발적인 위기관리 처세에서 비롯되었는지

13) Eckhardt, “Who Thought That Early Christians Formed Associations?” 301. 312-314도 보라.

14) Eckhardt, “Who Thought That Early Christians Formed Associations?” 301-302.

아니면 총독의 명령이 교회에 적용된 결과인지는 플리니의 짧은 문장만으로는 결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크리스천이 아님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로마 황제와 로마제국의 신들에 대한 경배를 요구했음을 주목한다면, 교회를 향한 총독과 황제의 문제의식은 정치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로마 황제에 대한 경배 요구는 교회의 문제를 로마제국의 정치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의심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리니의 금지령은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그렇다면, 로마 당국, 적어도 비티니아 총독의 눈에는 교회가 정치적인 위험을 내포한 조직이며 금지 명령의 영역에 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플리니는 자신의 헤타이리아 금지를 교회와 연관된 사건으로 보고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플리니가 교회를 헤타이리아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회는 자발적 조직의 성격을 유지했을 것이다. 플리니의 용법에서, 헤타이리아가 자발적 조합을 지칭하는 일반적 표현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조직을 가리킨다면, 교회는 헤타이리아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자발적 조합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자발적 조합과 헤타이리아는 중첩되는 영역을 지닌 별개의 범주이다. 모든 자발적 조합이 헤타이리아가 아니며, 동시에 모든 헤타이리아가 자발적 조합은 아니다. 총독의 금지 명령 이후, 교회는 새벽 모임을 지속하였고 그것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였다. 새벽 회합에 모인 크리스천들은 신앙 고수와 윤리적 삶을 결단하는 공동 맹세라는 의식(儀式)¹⁵⁾을 통해 정체성을 공고히 하였다. 정기적인 모임과 능동적인 정체성 유지 노력 등은 교회가 사회적 조직으로서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활동은 교회가 사회조직으로 형성되었고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그러한 성격을 이어갔음을 보여주며, 또한 교회가 자발적 조합의 성격을 지녔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에크하르트 연구는 교회가

15) 번역은 필자의 것. “quod ipsum facere desisse post edictum meum, quo secundum mandata tua hetaerias esse vertueram”(Pliny, *Ep.* 10.96.7).

16) 신앙을 저버리지 않으며 도둑질, 강도, 간통, 횡령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맹세(Pliny *Ep.* 10.96).

지닌 조합의 성격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교회는 헤타이리아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고, 그것은 그들의 조직적 활동과 관련되었다. 설혹, 에크하르트的主張을 수용하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조합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교회를 자발적 조합과 비교하여 연구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타당하다.

초기 교회에 대한 동시대 외부인의 시각에 관한 논의와는 별도로 그리스-로마 사회의 자발적 조합이라는 모델을 초기 교회에 관한 사회사적 탐구에 적용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 조합(association)은 다양한 명사로 지칭되는 그리스-로마 사회의 자발적 조합을 오늘날 재구성한 것이다. 조합의 범주에 속하는 여러 조직은 단일한 구성이나 운영 방식을 지닌 사회적 구성체가 아니었다. 그리스-로마의 자발적 조합은 다양성 속에서 연속성을 지닌 여러 사회조직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는 학문적 비교연구를 위한 범주("taxonomic category"¹⁷⁾)로 사용될 수 있다. 초기 교회 연구를 위한 자발적 조합이라는 관점은 교회와 동시대 사회의 조합 사이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포착하기 위한 도구(heuristic tool)이다.¹⁸⁾ 물론, 이러한 개념의 무분별한 확장이나 무비판적 적용을 경계해야 하지만, 자발적 조합 모델은 고대 사회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고대인들의 사회적 삶을 이해하도록 하는 유효한 비교연구방법론이다. 본 논문이 다루는 로마교회의 '다스리는 자'(12:8)도 자발적 조합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로마교회의 정황과 바울의 권고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17) Richard S. Ascough, "Methodological Reflections on Synagogues and Christ Groups as 'Associations': A Response to Erich Gruen," *JJMJS* 4 (2017), 121.

18) Ascough, "Methodological Reflections," 126. 아스카우의 이러한 설명은 유대교 회당을 조합의 범주에 넣는 것을 반대한 그루엔(Gruen)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되었다. 유대교 회당을 조합으로 이해하는 문제에 대한 일련의 논쟁은 다음을 참고하라. Ascough, "Methodological Reflections," 118-126; Erich S. Gruen, "Synagogues and Voluntary Associations as Institutional Models: A Response to Richard Ascough and Ralph Korner," *JJMJS* 3 (2016), 125-131; Ralph J. Korner, "Ekklesia as a Jewish Synagogue Term: A Response to Erich Gruen," *JJMJS* 4 (2017), 127-136.

3. 그리스-로마 사회 자발적 조합

그리스-로마 사회의 자발적 조합은 형태, 지역, 성격 등에 있어서 매우 다양했지만, 그 특징에 따라 몇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직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발적 조합들이 많았다. 제빵업자 조합이나 운송업자 조합, 공연인 조합과 같이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조합이 활발하였다. 가령, 로마 티베리스 강의 곡물 운송업자들의 조합은 로마의 식량 공급자로서 중요한 위상을 가졌고, 원로원 의원을 후원자로 두기도 하였다.¹⁹⁾ 물론, 이러한 현저한 위상은 일부 영향력 있는 조합에 국한된 것이었으나, 조합은 각자 위치한 사회 속에서 사회 상층부와 연결하는 고리가 되었다. 둘째, 종교적 성격이 추가 된 조합들이 있었다. 특정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형성하여 정기적으로 모여 종교의례를 행하고 조합원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이들 조합의 명칭은 종종 ‘숭배하는 자들’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물론, 종교적인 성격은 종교조합(cult association)만의 특징이 아니다. 다른 범주의 조합들도 각 조합의 수호신을 정하고 그에 대한 숭배를 조합 활동의 일부로 삼았다. 하지만, 종교조합은 종교적 목적이 추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조합들과 달랐다. 그들은 종교적인 색채를 지녔지만 종교를 모임의 일차 목적으로 삼지는 않았다. 셋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합이 있었다.²⁰⁾ 동일한 구역에 거주하거나 같은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친목을 다지고 이익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같은 출신 지역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었다. 이것은 이주민 조합이라 부를 수 있는데, 타지에서 출신지 문화를 이어가고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²¹⁾ 또한, 새로 이주한 지역에 정착하는 데도 동향 사람들의 결속이 필요하기도 하였다. 외지인에 대한 차별은 현실적인 문제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주민 조합과 연결하여,

19) Koenraad Verboven. “The associative order: status and ethos among Roman businessmen in Late Republic and Early Empire.” *Athenaeum* 95 (2007), 8-10.

20) John S. Kloppenborg, *Christ's Associations*, 1-3.

21) Harland, *Dynamics of Identity in the World of the Early Christians*, 104-116.

인종적 배경을 공통분모로 한 조합들도 있었다.

활발하고 다양한 자발적 조합은 사회의 일부 계층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다. 사회의 상층부터 하층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 조합을 형성하였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고 사회 속에서 자기 위치를 협상하였다. 가령, 그리스 폴리스의 조합들은 도시 국가의 체제나 행정 시스템, 가치체계 등을 모방하여 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²²⁾ 이러한 활동은 조합이 작은 폴리스의 성격을 가졌고 조합원들은 유사 폴리스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찾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로마제국 시대에도 여전하였다. 조합들은 제국의 행정을 모방하여 자신들만의 의미 세계를 구축하였고, 그 속에서 각 구성원은 조합 밖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역할, 신분, 명예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일종의 가상세계를 만들어 일상에서 도달할 수 없는 지위와 영예를 누리는 우회적 방법이었다.

자발적 조합에서 명예와 지위의 민주화는 임기직 직임자(official)의 선출과 깊이 관련되었다. 조합들은 조직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조합 내 다양한 직임자를 두었다. 직임의 다양한 종류와 역할은 앞서 말한 가상의 폴리스 형성과 연관되었다. 예를 들어, 조합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회장(προστάτης, προστάτης, *quinquennalis*), 재정과 회계를 담당하는 자(ταμίης), 명부 관리 등을 맡은 서기(γραμματεὺς) 등을 두어 조합이 하나의 행정체계를 모방하였다.²³⁾ 조합의 직임은 일반적으로 임기를 정해 선출하는 자리였다. 특별한 경우, 종신직을 두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것은 조합을 위해 큰 공헌을 한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명예직인 경우가 많았다.²⁴⁾ 물론, 실제적인 리더

22) Kloppenborg, *Christ's Associations*, 280, 288-290.

23) 조합 직임자의 역할이나 명칭은 매우 다양했다.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직무와 직책명을 제시한다. 다양한 직책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Philip A. Harland, *Greco-Roman Associations: Texts, Translations and Commentary, II. North Coast of the Black Sea, Asia Minor* (Berlin: De Gruyter, 2014), 477-485.

24) 가령, 조합은 '아버지'와 '어머니' 칭호를 조합의 주된 후원자/지도자에게 부여하였고 이는 종신 칭호였다. Kloppenborg, *Christ's Associations*, 1-2; Harland, *Dynamics of Identity in the World of the Early Christians*, 82-96.

십을 행사하는 자리였으나 그 공헌을 인정하고 명예를 높이기 위해 종신으로 직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²⁵⁾ 이러한 경우에도 조합의 지도력은 다른 선출직 직임자들을 통해서도 행사되었다. 기원후 2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한 조합의 정관은 “의장을 제외한 직임들[i.e., 서기, 회계 등]은 매년 투표로 선출하라”고 규정한다(*IG II² 1369 = GRA I 49 = PH3585*).²⁶⁾ 의장은 임기는 종신으로 보이며 다른 직임자들은 매년 선출되었다. 이와 같은 선출제도는 조합의 직임(office)이 조합원 사이에서 민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 사회에서는 재정담당, 의장, 서기 등의 직임을 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조합 내부에서는 그러한 역할과 그 역할에 따른 명예에 접근할 수 있었다. 조합은 비교적 명예의 고른 분배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였다.

명예를 추구하는 그리스-로마의 문화적 특징은 자발적 조합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조합원들은 조합 밖에서 얻을 수 없는 명예를 조합 안에서 얻기를 원했다. 이러한 명예 추구 심리는 조합 내부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조합의 공동식사는 종종 그러한 갈등의 장소가 되었다. 조합 안에서 명예를 부여하는 방법은 다양했지만, 공동식사는 그중 중요하고 현저한 방법이 되었다. 조합의 직임자들은 구별된 자리에 앉았고, 더 나은 음식을 더 많이 받았다.²⁷⁾ 그들의 자리와 음식은 더 명예로운 위치에 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규칙과 진행 방법은 종종 무시되기도 하였는데, 임기가 끝난 조합원이 구별된 자리에 앉기를 고집하거나 다른 사람을 제치고 그 자리에 앉기도 하였다. 이런 경우 자리를 빼앗긴 사람과 자리를 차지한 사람 사이에 언쟁과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조합의 공동식사는 다툼과 파행을 겪기도 하였다.²⁸⁾

25) 조합의 회장/의장이 종신직이었던 예들이 발견된다. Richard S. Ascough, Philip A. Harland and John S. Kloppenborg, *Associations in the Greco-Roman World: A Sourcebook* (Waco: Baylor Univ. Press, 2012), 17, 68.

26) Ascough, Harland and Kloppenborg, *Associations in the Greco-Roman World*, 17.

27) 플리니의 편지는 이러한 관습을 잘 보여준다. Pliny, *Epistles* 2.6.

28) John S. Kloppenborg, “Greco-Roman *Thiasoi*, the *Ekklesia* at Corinth and Conflict Management,” Rom Cameron and Merrill P. Miller, eds., *Redescribing Paul and*

조합 모임에서 언쟁과 다툼은 흔한 일이었다.²⁹⁾ 위에서 말한 자리다툼은 여러 상황 중 하나일 뿐이며, 여러 다른 이유로 다툼이 일어났다. 조합원들이 파벌을 만들거나, 다른 조합원을 법정에 고소하거나, 공동식사에서 다른 조합원을 중상모략하거나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았다. 술에 취하여 언쟁을 벌이거나 과거의 나쁜 기억을 끄집어내어 싸우기도 하였고, 심하면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생소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일으키고 다투곤 하였다.³⁰⁾ 이러한 문제는 흔히 겪는 조합의 골칫거리였다. 조합들은 조합원들의 다툼을 방지하고 공동식사의 파행을 막기 위한 규정을 정관에 명시하였다. 기원전 1세기 중반 제우스를 숭배하는 한 종교조합은 공동식사에서 다른 조합원을 모욕하거나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기원후 2세기로 추정되는 디오니소스 추종자들(*Iobakchoi*) 이 남긴 명문(*IG II² 1368*)은 허락받지 않은 발언과 노래 부르기, 다른 조합원의 자리 뺏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았다. 문제를 일으키는 조합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³¹⁾

조합원들의 갈등과 공동식사의 파행이 심심치 않았던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직임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공동식사를 잘 조직하여 화합으로 이끈 의장은 조합의 인정과 함께 영예를 부여받았다. 조합의 화합은 정관의 금지 및 벌칙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성취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규정을 집행하는 직임자의 역할이며, 직임자 중

the Corinthian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1), 211.

29) Kloppenborg, "Greco-Roman *Thiasoi*, the *Ekklesia* at Corinth and Conflict Management," 208-210, esp. 209.

30) 이러한 맥락에서 "술 취하지 말라"(엡 5:18)는 권고는 공동식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툼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1) 명문의 헬라어 본문과 영문 번역 및 해설은 다음을 보라. John S. Kloppenborg and Richard S. Ascough, *Greco-Roman Associations: Texts, Translations, and Commentary, I. Attica, Central Greece, Macedonia, Thrace* (Berlin: De Gruyter, 2011), 241-257. 다음도 보라. Kloppenborg, "Greco-Roman *Thiasoi*, the *Ekklesia* at Corinth," 210-211; idem, "Associations, Christ groups, and their place in the *Polis*," *ZNW* 108 (2017), 52.

가장 높은 위치에 의장이 있었다. 갈등이 발생한 후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 전체에 경종을 울릴 수 있었다. 또한, 공정한 처리를 통해 조합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직무수행은 사실 조합의 질서 유지에 있어 이차적이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조합을 이끄는 의장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공동식사에서 문제가 될만한 소지를 미리 제거하는 것이었다. 플루타르크의 기록은 이러한 공동식사 의장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Quaest. Conv.* 1.4 [620A-622B]). 그에 따르면, 심포지엄의 주인(host)과 의장(symposiarch)은 참가자 사이의 악감정 및 갈등과 분열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조심하여야 한다. 특히, 의장은 매우 정치적으로 처신해야 한다.³²⁾ 누가 초대받는지, 초대된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지, 심포지엄 참여자들의 심신 상태가 어떤지, 대화의 주제를 어떻게 이끌지, 참가자들 사이의 경쟁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염두에 두고 공동식사를 이끌어야 한다. 플루타르크는 심포지엄 참가자들의 화합을 이상적인 사회의 평화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여 이를 강조하였다.³³⁾

자발적 조합의 직임자들은 책임에 맞는 직무수행을 명예로운 것으로 여겼고 그러한 직무수행은 조합원들의 칭송과 영예를 받았다. 아테네에서 발견된 한 명문은 조합의 직임자로 헌신한 조합인 디오도로스를 기린다(IG II² 1343 = PHI 1343 = GRA I 48).³⁴⁾ 디오도로스는 말과 행동으로써 조합을 이롭게 하였으며 조합의 재무담당(ταμίας)으로서³⁵⁾ 충실히 직무를 다하였고 특히 조합의 설립을 관장하였다(προεστά||θησεν τοῦ θεμελιωθῆναι

32) Philip A. Stadter, "Leading the Party, Leading the City the Symposiarch as *Politikos*," J. R. Ferreira, et al., eds., *Symposion and Philanthropia in Plutarch* (Coimbra: Imprensa da Universidade de Coimbra, 2009), 123-126.

33) Stadter, "Leading the Party, Leading the City the Symposiarch as *Politikos*," 128-129.

34) 그리스어 본문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다. "Honors by Soteriasts for Diodorous the Founder (37-35 BCE)," 2021.2.27., <http://philipharland.com/greco-roman-associations/honors-by-the-soteriasts-for-their-founder-37-35-bce/>

35) 명문에는 분사 ταμειύσας가 사용되었다.

τὴν σύνοδον). 그는 조합의 설립자요 임직자로서 조합을 발전시켰고 조합의 공동자금을 늘렸다. 디오도로스의 직무수행 행태는 “스푸테와 필로티미아”(σπουδὴν καὶ φιλοτιμίαν)로 표현된다. 스푸테의 일차 의미는 신속함, 빠름이며, 이는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 열의를 품은 신속함을 뜻하기도 하고, 나아가 진지한 참여를 뜻하기도 한다.³⁶⁾ 디오도로스의 열정적이고 진지한 직무수행은 또한 명예 추구라는 덕목과 연결된다. 그의 스푸테는 필로티미아에서 비롯되어 다시 조합원들 사이에 명예를 높이는 덕목으로 작용하였다.

4. 1세기 로마교회의 정황

로마에 있던 기독교 공동체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바울이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등지에서 활발히 선교하던 1세기 중반에 이미 로마에 여러 크리스천 신앙공동체가 형성되었다.³⁷⁾ 이는 예수의 지상 사역 후 매우 이른 시기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로마로 이주하였던 역사적 상황을 추정하게 한다. 로마의 유대인 공동체 역사는 기독교 공동체보다 길다. 기원전 2세기에 이미 유대인 이주민 공동체가 로마에 형성되었다.³⁸⁾ 기원전 138년에 발레리우스 막시무스(Valerius Maximus)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의 행정관(praetor) 히스팔루스(Hispalus)가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강제하였다.³⁹⁾ 로마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 사이의 교류는 현대인이 상상

36) *Brill Dictionary of Ancient Greek*, 2015 ed., s.v. “σπουδή”

37) 로마서 16장은 로마에 여러 회중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다양한 형태의 장소 및 시설에서 모였을 것이다. 초기 교회 모임 장소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다음을 보라. 조병수, “로마 세계에서 초기 기독교의 가옥 교회,” *Canon&Culture* 3 (2009), 91-122.

38) 참고하라, Wolfgang Wiefel, “The Jewish Community in Ancient Rome and the Origins of Roman Christianity,” Karl P. Donfried, ed., *The Romans Debate* (Peabody: Hendrickson, 1995), 85-101.

39) Richard N. Longenecker, *Introducing Romans: Critical Issues in Paul's Most Famous Letter* (Grand Rapids: Eerdmans, 2011), 61. 고대 로마의 유대인에 대해서는 60-69를 보라.

하는 것보다 더 빈번하였다. 상업 활동, 구직 등의 이유로 많은 유대인이 이미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로마로 자발적으로 이주하였고,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은 노예 거래 또는 주인의 이주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제국의 수도로 이동하였다.⁴⁰⁾ 이러한 이동과 교류는 로마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 사이에 사회망(社會罔)을 구축하였고 양자 사이에 다양한 물질, 문화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교류의 결과, 기독교 역사의 매우 이른 시기에 이미 크리스천 공동체들이 로마에서 활동하였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에는 크레스투스(Chrestus)를 둘러싼 갈등이 유대인 사회에 문제를 일으켜 황제가 유대인 추방을 명령하는 칙령을 선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만큼(Suetonius, *Divine Claudius* 25.4; 행 18:2 참고) 로마의 크리스천 활동은 활발하였다.⁴¹⁾

로마교회의 정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료는 많지 않다. 기독교의 로마 유입의 정확한 시기나 경로를 알려주는 자료가 희박하다. 여러 역사적 정황 및 간접 자료를 토대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1세기 로마교회에 대해 알려주는 사료도 매우 빈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로 보내 편지인 로마서는 역사 자료로서 중요하다.⁴²⁾ 로마서를 로마교회의 상황을 재구성하

40) Peter Lampe, *Christians at Rome in the First Two Centuries: From Paul to Valentinus* (London: T&T Clark International, 2003), 1-16; Wiefel, "The Jewish Community in Ancient Rome," 92-100.

41) 크레스투스(Chrestus)의 모음 e는 라틴어에서 i와 종종 혼동된다. 크레스투스는 크리스토스(Χριστός)를 라틴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철자 변화로 본다면, 크레스투스로 인해 일어난 소동은 크리스토스를 둘러싼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로마의 유대 공동체 안에서 크리스토스가 쟁점이 되어 갈등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다음을 보라. Francis Watson, *Paul, Judaism and the Gentiles: Beyond the New Perspective* (Grand Rapids: Eerdmans, 2007), 173-174. 이러한 의견과는 달리, 크레스투스가 로마의 고문관(advisor)이라는 연구도 있다. H. Dixon Slingerland, *Claudian Policymaking and the Early Imperial Repression of Judaism at Rome* (Atlanta: Scholars Press, 1997), 179-217, 243-245. 저자는 로마의 고문관인 크레스투스로 인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었다고 주장한다.

42) 로마서 이후에는 1세기 말에 저술된 클레멘트의 편지가 로마교회의 내부를 보여주는 문헌 자료로서 거의 유일하다.

기 위한 작업은 방법론적 도전에 직면하기도 한다. 로마서는 바울 신학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로마교회의 정황을 반영하는 글이 아니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개신교 전통 속에 자리 잡았고, 이는 신약학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근래에는 로마서의 상황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로마서를 수신자의 정황에 대해 바울이 신학적인 대화를 시도한 문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로마교회의 정황을 재구성하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⁴³⁾

육식에 관한 문제를 둘러싼 교회 내 소위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의 갈등(롬 14장)은 로마교회의 정황을 반영한다는 점에 많은 연구자가 동의한다. 물론, 식탁 교제에서 발생한 '약한 자'와 '강한 자'의 대립은 수신자의 실제 정황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반론은 로마서 14장이 고린도전서의 '약한 자'⁴⁴⁾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요약적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⁴⁵⁾ 이에 따르면, 바울은 자신의 신학을 로마의 수신자에게 잘 제시하기 위해 고린도교회 사건을 계기로 정립한 신학을 요약하여 전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종종 로마서 12장의 '몸의 비유와 은사' 단락(3-8절)이 언급된다. 이 단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교회 내의 다양한 은사에 관해 권고하는 바울의 교회론과 은사론을 축약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마서 12장과 14장의 해당 단락들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반복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바울이 전하는 신학적 메시지가 양 서신에서 모두 음식, 식탁 교제, 그리스도의 몸, 은사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43) Longenecker, *Introducing Romans*, 92-168.

44) 헬라어 본문(NA²⁸)은 '약한 자'(ὁ ἀσθενῶν, 고전 8:11)라고만 기록한다(고전 8:9, 10, 12 참고). 개역개정은 "믿음이 약한 자"로 옮기지만 이는 본문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 참고로, 새번역은 '약한 자'로 번역한다.

45) 던은 바울이 로마교회 신자들의 자기 지랑과 교만한 태도에 대해 권고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을 요약하여 로마서 12장 4-5절에 기록하였다고 설명한다. James D. G. Dunn, *Romans 9-16*, WBC (Nashville: Thomas Nelson, 1988), 719-720. 던은 로마교회가 자세한 바울의 그리스도 몸 교회론을 모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적었다고 설명한다. Brendan Byrne, *Roman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7), 369.

가령,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몸의 비유와 은사를 연결하여 논의하면서 열거하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과는 상이하다. 로마서의 은사 중 “배푸는 자”(ὁ μεταδιδούς), “다스리는 자”(ὁ προϊσταμενός), “공활을 배푸는 자”(ὁ ἐλεῶν) 등은 고린도교회의 은사로 언급되지 않다.⁴⁶⁾ 이들 은사는 로마교회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린도교회는 방언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바울은 이 쟁점을 처리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고 회중 예배리는 특성과 관련하여 신학적, 목회적 의미를 설명한다(고전 14장). 양 서신에서 바울은 다른 강조점으로 서로 다른 수신자 정황을 염두에 두고 권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로마서 14장의 ‘약한 자’와 ‘강한 자’ 문제도 고린도전서와는 다른 내용을 보여준다. 우선, 로마교회의 정황은 신자들의 공동식사 자리이다. 이는 고린도교회의 우상 제물 섭취 문제의 배경과는 다르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우상의 집”(εἰδωλεῖον, 8:10)이나 일반적인 상거래(10:25) 또는 개인적 초대의 상황(10:27)을 상정하고 우상 제물 섭취 문제에 대해 권고한다. 반면, 로마서에서 바울은 수신자의 공동식사 자리에서 촉발된 갈등을 우상 제물 문제라고 명시하지 않는다. 다만, 육식에 관해서 서로 다른 신학이 대립하는 정황을 묘사할 뿐이다. 바울은 또한 육식 문제와 아울러 절기 준수와 포도주 음용에 관해서도 언급한다(14:5-6, 21). 이는 로마교회의 갈등이 절기 문제 및 포도주 음용과도 관련되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각 서신 사이의 이러한 차이점들을 주목하면, 바울은 로마서를 수신자의 정황에 적용할 수 있는 서신으로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 있다.

로마교회는 채식을 주장하는 신자들과 육식도 가능하다는 신자들 사이에 갈등을 겪었다. 로마교회 정황에 관한 논의에서 흔히 전지는 ‘약한 자’로(롬 14:1-2),⁴⁷⁾ 후자는 ‘약한 자’와 대비하여 ‘강한 자’로⁴⁸⁾ 명명된다. 이들의

46) 이들 은사는 교회에 경제적인 조력을 베푸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던은 이들 세 가지 은사를 묶어 “복지 서비스”(welfare service)라고 부른다. Dunn, *Romans 9-16*, 731-732. 이와 관련하여 자선가 사상에 관한 개괄적 연구가 있다. 임진수, “그레코-로마 세계와 초기 기독교의 자선가 사상(euergetism),” *Canon&Culture* 8 (2014), 269-303.

47)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가 바른 번역이라는 주장이 있다. Jae Won

갈등은 신학적인 이견으로 인해 발생한 대립이었다. 그들은 무엇이 정결한가에 관한 논쟁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결과 부정의 관점에서 어떤 신자들은 육식이 가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다른 신자들은 채식만을 고집하였다. 바울은 그들의 논쟁이 의미 없다고 설득하면서, “아무것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부정하다”(οὐδὲν κοινὸν δι’ ἑαυτοῦ, εἰ μὴ τῷ λογιζομένῳ τι κοινὸν εἶναι, ἐκεῖνῳ κοινόν, 14:14)고 권고한다. 이러한 점을 주목하면, 로마교회 내의 신학적 이견은 신앙윤리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공동식사에서 참여한 대립을 일으켰다. 그러한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약한 자’와 ‘강한 자’의 관계를 묘사하는 바울의 단어선택은 그들 간에 있었던 상호비판의 강도가 예상롭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바울은 그들의 대립을 ‘비판’(διάκρισις, 14:1), ‘판단/비판하다’(κρίνω, 14: 4, 10, 3), ‘경멸하다’(ἐξουθενέω, 14:3, 10)라는 단어로 묘사한다.⁴⁹⁾ 이러한 갈등은 상대 그룹을 배척하려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받음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προσλαμβάνεσθε ἀλλήλους, 15:4)는 바울의 권고는 그러한 분위기를 엿보게 한다. 로마교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가지고 설득해야 할 만큼 어려운 지경에 빠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약한 자’와 ‘강한 자’의 대립은 교회의 공동식사 자리에서 표출되었다. 교회의 공동식사는 식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자들이 신앙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자리였다. 먹고 마시는 행위는 참여자들 사이에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하지만, 로마교회의 공동

Lee, “Paul and Ethnic Difference in Romans,” R. C. Bailey, T. Benny and F. F. Segovia, eds.,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9), 148, 150.

48) 로마서 14장에는 ‘강한 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약한 자’의 주장에 반대하는 상대 그룹을 상징하여 ‘강한 자’라 부른다.

49) 개역개정에는 ‘ἐξουθενέω’를 ‘엎신여기다’로 옮긴다. 경멸보다는 순화된 표현이라 할 수 있지만, ‘경멸하다’와 ‘엎신여기다’ 모두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멸시를 의미한다. 본 논문은 ‘경멸하다’가 로마교회 내부 관계의 심각성을 더 잘 드러낸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번역하였다.

식은 정결과 부정에 관한 다른 의견들이 대립하고 신자들 사이에 비판과 경멸이 오가는 자리가 되었다.⁵⁰⁾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힘의 우열이 포착되기도 한다. 바울은 오직 ‘강한 자’만을 ‘경멸하다’의 주체로 서술한다. ‘강한 자’에 대한 ‘약한 자’의 태도는 ‘비판하다’로 일관되는 반면, ‘약한 자’에 대한 ‘강한 자’의 태도는 비판 이외에도 ‘경멸’로 묘사된다(14:3, 10). ‘경멸’은 상대방에 대한 강한 무시와 멸시를 의미한다. 바울의 이러한 단어선택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울이 이해한 로마교회의 정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경멸할 수 있는 위치였던 반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같은 태도로 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대립하는 양자 사이에는 힘과 지위의 우열이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⁵¹⁾ 공동식사에서 수세에 몰린 쪽은 ‘약한 자’였고 바울은 ‘강한 자’에게 ‘약한 자’를 받으라고 권고한다(14:1, *προσλαμβάνεσθε*). 바울은 15장 7절에서 “서로 받으라”고 권면하지만, 실제로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강한 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곧, 열세에 처한 ‘약한 자’는 신앙공동체에서 소외될 수 있는 위험에 처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동식사에서 불거진 신학적 대립과 반목은 로마교회의 은사와도 관련되었다. 로마서 12장의 은사들은 로마교회의 식탁 교제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되었던 역할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영적인 체험에 따른 특별한 능력의 발현이라기보다 교회의 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일상적 기능들에 가까웠다. 예언, 가르침, 위로 등은 교회의 공동식사에 있었던 상호 권면이나 지도자의 성경 해석 또는 예수 전승의 전달 및 해설을 아우르는 기능들이었을 것이다. 섬김, 배품, 다스림, 긍휼 등은 교회가 모일 때 필요한 물질적인 또는 행정적인 기능들로 보인다. 가령, 배품은 교회 신자들을 위한 물질적 조력과 관련된 기능이었고, 다스림(다스리는 자, 12:8)은 교회 모임을 조율하고 공동식사가

50) 신약시대의 음식과 식사에 관한 신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가 있다. 차정식, “음식과 식사의 신학적 지형학 -신약성서를 중심으로-,” *Canon&Culture* 2 (2008), 99-135.

51) Sylvia C. Keesmaat and Brian J. Walsh, *Romans Disarmed: Resisting Empire / Demanding Justice* (Grand Rapids: Brazos, 2019), 245-247.

크리스천 윤리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었던 리더십이었다.⁵²⁾ 로마교회의 은사는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전제하지 않는다. 바울은 로마교회의 은사를 성령의 활동에 따른 결과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은사들이 하나님의 위임에 따라 은혜로 주어졌다고만 진술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자 다릅니다”(ἔχοντες δὲ χάρισματα κατὰ τὴν χάριν τὴν δοθεῖσαν ἡμῖν διάφορα, 롬 12:6)라고 수신자들을 권면한다.

상술한 로마교회 은사의 특성은 고린도교회의 은사와 비교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고린도교회의 치유, 능력 행함, 방언, 방언 통역, 예언 등의 은사는 신자들을 통한 성령의 활동이다. 바울은 “같은 한 성령이 이 모든 것들[i.e, 은사들]을 행하십니다”(πάντα δὲ ταῦτα ἐνεργεῖ τὸ ἓν καὶ τὸ αὐτὸ πνεῦμα, 고전 12:11)라고 고린도의 수신자들에게 설명한다. 이들 은사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전제로 한 비일상적인 특수한 경험이며 활동이다. 반면, 로마교회의 은사들은 고린도교회의 은사들과 같이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성령의 영적 활동에 기인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오히려 교회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일상적인 사역을 가리킨다. 로마서 12장에서 예언이 은사로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고린도교회가 경험한 예언과 같은 성격인지는 의문이다. 후자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현장성과 즉자성이 강하지만(고전 14장 참고), 전자는 그러한 즉발성을 상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대 유대교 전통은 예언을 영에 감동되어 특수한 영적, 심적 상태에서 발화(發話)하는 메시지로만 이해하지 않았다. 성경을 주석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을 예언 활동으로 이해하였다.⁵³⁾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

52) 이상목, “로마서 12장 은사 단락이 지닌 공동체적 의미 - 로마교회 지도자들의 갈등과 바울의 일치 권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4 (2017), 55-82.

53) 요세푸스는 자신의 꿈을 해몽하면서 히브리 성서에 관한 지식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예언적이라 이해했다(Josephus, *War* 3.352). 니센은 기원전 6세기 이후 예언이 문서적인 현상(a literal phenomenon)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Martti Nissen, “What is Prophecy? An Ancient Near Eastern Perspective” John Kaltner and Louis Stulman, eds., *Inspired Speech: Prophecy in the Ancient Near East: Essays in Honour of Herbert B. Huffmon* (New York: T & T Clark, 2004), 30-31. 다음도 참고하라.

는 이유로 로마교회의 예언을 고린도교회의 예언과 같은 은사로 볼 필요가 없다.

5. ‘다스리는 자’에 대한 권고가 지닌 사회적 함의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열거하는 은사 중 ‘다스리는 자’가 가장 그리스 로마 사회의 자발적 조합의 기능과 연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⁵⁴⁾ 조합들 사이 직임의 종류나 명칭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널리 발견되는 명칭은 회장, 서기, 회계/재무 등의 역할을 가리키는 것이다. 로마서의 은사들은 서기, 회계로 볼 만한 것은 없지만, 조합의 회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은사가 있다. 곧, ‘다스리는 자’(ὁ προϊστάμενός, 12:8)이다. Προϊστάμενός는 조합의 회장을 뜻하는 προστάτης/προστάτης와 어원이 같다.⁵⁵⁾ 이 단어들은 ‘리더로서 역할한다’는 일차적 뜻을 지닌 동사 προϊστημι에서 파생하였다. Προστάτης/προστάτης는 조합의 회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공동식사를 주관하며 조합에 재정적으로 공헌하는 직임이다.⁵⁶⁾ 회장의 직무를 훌륭히 수행한 사람은, 다른 직임자의 경우처럼, 조합에서 명예를 얻었고, 비석을

David E. Aune, *Prophecy in Early Christianity and the Ancient Mediterranean World* (Grand Rapids: Eerdmans, 1983), 217.

54) ‘다스림/다스리는 자’는 살전 5:12, 딤후 3:4-12; 5:17 등에서 발견된다. 본 논문을 심사한 익명의 심사자는 위 서신들에서 발견되는 ‘다스리는 자’에 대한 개념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것은 본 연구의 주제와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본 논문에서는 다른 서신서들에 대해 고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다스림’을 자발적 조합과 관련해서 1세기 교회 속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심사자의 제안에 감사를 표한다.

55) 명문에 나타난 προστάτης/προστάτης의 용례는 다음 문헌의 색인을 참고하라. Harland, *Greco-Roman Associations*, 483. 다음도 보라. Kloppenborg, *Christ's Associations*, 371, n.102.

56) IG II² 1369. 다음을 참고하라. John S. Kloppenborg and Richard S. Ascough, *Greco-Roman Associations: Texts, Translations, and Commentary, I. Attica, Central Greece, Macedonia, Thrace* (Berlin: De Gruyter, 2011), 229-232.

세우거나 관(冠)을 선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칭송받았다. 로마서의 '다스리는 자'는 독립 분사로 표현된 점으로 보아 *προστάτης/προστάτης*와 같은 칭호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직무수행의 내용은 조합의 회장과 매우 유사했고 바울은 분사를 사용하여 회장의 직임을 표현하였다.⁵⁷⁾ 이는 로마교회의 직임 명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바울이 직임을 적시하지 않으면서 직임자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조합의 활동 중 공동식사는 조합의 주된 활동으로서 조합원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고 정체성을 형성, 유지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조합의 식탁 교제는 종종 조합원들의 다툼과 분열, 싸움으로 얼룩졌다(*IG II² 1368* 참고).⁵⁸⁾ 공동식사에서 조합원들 사이 다툼이나 분열이 없도록 하는 것, 또한 다툼이 생겼을 때 이에 잘 대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공동식사를 주관하는 직임자의 책무였다. 조합의 회장은 조합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공동식사를 잘 준비하고 진행하여 조합원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의무를 지녔다. 이러한 의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회장은 조합원들의 칭송을 받았고 조합은 회장의 명예를 높였다.

로마교회의 은사들은 공동식사에서 수행되었던 사역들이었다. 신자들이 신앙공동체로 모여 종교의식을 행하고 교제를 나누었던 자리가 바로 식탁 교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스리는 자'의 역할은 공동식사를 잘 진행하여 조합을 화합으로 이끌어야 할 조합 회장의 역할과 유사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로마교회가 공동식사에서 신학적 이견을 동반한 갈등을 겪었다는 점이다. 로마교회의 식탁 교제는 정결과 부정에 관한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였고, 이는 교회 내 지위의 우열과도 연관되었다. '약한 자'와 '강한 자'의 대립은 힘의 우열관계를 동반하였고, 전자는 상대적 약자로서

57)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하는 자'라는 독립적 분사형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문법적인 특징은, 가령,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을 언급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르다. 물론, 로마서 12장에서도 첫 두 은사는 '예언'(*προφητεία*, 6절)과 '섬김'(*διακονία*, 7절)이라는 명사로 지칭되지만, 나머지 은사들은 모두 '-하는 자'로 불린다.

58) 각주 31를 보라.

교회 내에서 열세에 있었다. “서로 받으라”(προσλαμβάνεσθε ἀλλήλους, 롬 15:7)는 바울의 권고는 양 그룹의 공존을 위한 권면이었다.

바울은 ‘약한 자’와 ‘강한 자’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의 공동식사가 상대방을 신학적 이견으로 지적하고 비판하는 자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설득한다. 그는 논란을 일으키는 음식 품목인 고기를 교회의 식탁 교제에서 제하라고 권고한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혹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거나 공동체 화합을 위한 실제적 효과는 의문스럽다고 비판할 수 있다.⁵⁹⁾ 하지만, 앞서 살펴본 플루타르크의 문헌이 보여주듯,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을 공동식사에서 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었다. 고기를 제하라는 바울의 권고는 매우 ‘정치적’(πολιτικός)이며 현실적인 조언이었다.

로마교회의 ‘다스리는 자’가 조합의 회장이나 공동식사의 의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그는 교회의 식탁 교제를 화합으로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녔다. 바울은 ‘다스리는 자’가 “ἐν σπουδῇ”하게 직임을 수행하라고 권고한다. 바울이 로마교회의 ‘다스리는 자’의 성공적 직무를 “ἐν σπουδῇ”라는 부사구로 표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많은 명문 자료에 따르면, 조합이 직임자의 직무 수행을 높이 평가하여 명예를 칭송할 때, 그 직임자의 덕목은 스푸테(σπουδή)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ἐν σπουδῇ”를 설명할 수 있다. ‘다스리는 자’의 다스림은 신앙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회장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혹자는 로마서의 수신자가 “ἐν σπουδῇ”를 보고서 회장의 성공적 책무가 무엇인가를 연상했겠는가라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로마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그러한 연상은 자연스럽다 할 수 있다. 정기적인 공동식사를 가지는 신앙공동체의 회장(‘다스리는 자’)이 “ἐν σπουδῇ”하게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로마교회가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의 대립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다는 점을

59) 다음을 참고하라. John M. G. Barclay, “‘Do we undermine the Law?’ A Study of Romans 14.1-15.6,” *Pauline Churches and Diaspora Jews* (Tübingen: Mohr Siebeck, 2011), 37-59.

고려하면, 회장이 해야 할 바는 명확해진다. 그는 신자들 사이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갈등이 발생한 후에는 양자를 화합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다스리는 자'가 그렇게 직무를 수행할 때에만 비로소 스푸데의 덕목을 실천한 것이 된다. 그리스-로마의 문화적 배경은 그러한 덕목을 실천하지 않은 조합 회장은 명예가 아닌 수치를 얻는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의 은사 단락에서 그리스-로마 사회의 문화 코드를 사용하여 수신자, 특히 직임을 맡은 은사 수행자를 설득하려 한다.

로마교회의 '다스리는 자'가 보여야 할 스푸데는 12장 은사 단락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의 함의를 포착하기 어렵다. 바울의 윤리권고가 담긴 여타 단락을 고려할 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개역개정은 “ἐν σπουδῇ”를 “부지런함으로,” 새번역은 “열성으로,” 공동번역은 “열성을 다해서”라고 옮긴다. 이러한 번역은 문자적 의미를 전하는 데 그친다. '다스리는 자'의 책무가 무엇이며, 그 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부지런함'이나 '열성/열정'을 보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⁶⁰⁾ “Ἐν σπουδῇ”에 대한 주잇(Robert Jewett)의 설명도 이러한 면에서 매우 제한적이다. 그는 해당 부사구의 의미를 “회중을 위한 책임들을 열정적으로 수행함”이라고 해석하지만,⁶¹⁾ 정작 그 열정적 수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피츠마이어(Joseph A. Fitzmyer)는 같은 헬라어 부사구를 설명하면서, “부지런한 관심은 리더가 수행하는 감독행위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고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부지런함이 지닌 함의를 탐구하지 않는다.⁶²⁾ 이러한 제한점들은 스푸데(σπουδῇ)를 그리스-로마 사회의 자발적 조합을 배경으로 설명할 때 극복할 수 있다.

‘다스리는 자’는 교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부지런히 대처

60) 물론, 이러한 제한점은 번역의 한계이다. 번역은 종종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본문의 함의를 끌어내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61) Robert Jewett, *Romans: A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753.

62) Joseph A. Fitzmyer, *Rom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C (New York: Doubleday, 1993), 646.

해야 한다. 식탁 교제에서 육식 품목을 배제하라는 바울의 권고는 ‘다스리는 자’가 신속하게 받아들여야 할 실천적인 조언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플루타르크의 예를 참고하면, ‘다스리는 자’는 신속한 대처를 통해 교회의 갈등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만약, 갈등이 이미 발생했다면, ‘다스리는 자’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일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로마교회의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로서 부여한 책무(12:3 참고)는 공동체의 화합, 곧 ‘약한 자’와 ‘강한 자’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로마교회의 화합, 특히 공동식사에서의 화합을 원하는 바울의 권고는 공동식사의 이상을 잘 보여준다.⁶³⁾ 식탁 교제의 목적은 참여자들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다. 갈등의 와중에 있는 로마교회를 향해 바울은 식탁 교제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한다. 곧,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γάρ ἐστιν 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βρῶσις καὶ πόσις ἀλλὰ δικαιοσύνη καὶ εἰρήνη καὶ χαρὰ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 14:17)라고 밝힌다. 의와 평화와 기쁨은 그리스-로마 사회에서 공동식사를 통해 추구되었던 덕목들이다. 의는 평등과 화합의 상태를 의미하며, 그러한 상태에서 공동식사 참여자들에게는 평화가 있게 되고, 의와 평화는 참여자들 사이에 기쁨을 가져온다.⁶⁴⁾ 바울은 수신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로마교회의 식탁 교제가 어떠한 덕목을 실천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교회의 공동식사는, 일반 사회의 식탁 교제와 같이, 참여자들이 평등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⁶⁵⁾

공동식사의 이상 실현은 물론 ‘다스리는 자’만의 책무는 아닐 것이다. 다른 은사들도 공동식사에서 수행된 사역들이고 그것들의 수행 행태는 공동체의 모임이 화합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갈등으로 나아가느냐에 영향을

63) Peter-Ben Smit, “A Symposium in Rom. 14:17? A Note on Paul’s Terminology,” *NovT* 49 (2007), 47-52. 스미트는 공동식사의 이상을 “symposiastic ideology”라고 표현한다.

64) Smit, “A Symposium in Rom. 14:17?” 48-51.

65) 이상목, “로마서 12장 은사 단락이 지닌 공동체적 의미,” 62-63.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다스리는 자'의 역할에 관한-그것도 "ἐν σπουδῇ"를 명시한- 바울의 권고는 로마교회의 갈등 해결을 위한 더욱 직접적인 합의를 지냈다.

6. 나가는 말

로마서는 오랫동안 바울서신 연구의 중심에 있었으나 자발적 조합의 관점을 사용한 로마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이러한 소외현상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자발적 조합을 모델로 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이후 더욱 발전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관한 연구들이 아직 드물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짧은 기간에 고린도전·후서나 데살로니가전서, 빌립보서는 물론 계시록과 히브리서 등에 관한 연구가 생산되었음을 고려하면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다음으로, 로마서가 지닌 성격과 특성이 바울의 여타 서신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점도 자발적 조합을 적용한 로마서 연구에 제한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가령, 고린도전서는 바울과 고린도교회 간의 긴밀한 양방향 소통에 기반하며 그들의 여러 쟁점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로마서는 바울과 수신자 사이의 양방향 소통에 기초하지 않는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으며 수신자에 대한 이차정보에 의지하여 로마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로마서의 이러한 특성은, 특히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전서와 비교하면, 자발적 조합의 관점에서 로마교회를 이해하고 로마서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정보가 제한적임을 뜻할 수 있고, 자발적 조합의 관점으로 로마서를 고찰하는 연구가 아직 드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로마서가 제공하는 로마교회에 관한 정보를 과소평가한 결과이다. 로마서는 수신자의 정황에 대한 바울의 깊은 관심을 반영하며 수신자의 쟁점을 다루는 신학적 논의를 치밀하게 전개한다.⁶⁶⁾

본 연구는 그리스-로마 사회의 자발적 조합의 관점을 로마서 연구에 적용하는 시도였다. 소논문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로마교회의 은사인 ‘다스리는 자’의 직무수행 양태를 나타내는 스푸데(σπουδή)의 함의를 자발적 조합을 모델로 고찰하였다. 그리스-로마 사회의 자발적 조합은 직업자들을 선출하여 조합의 운영을 맡겼다. 조합의 주된 활동인 공동식사는 종종 다툼과 분열의 자리가 되었는데, 조합의 직업자, 특히 공동식사를 주관하는 회장은 이러한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책무를 맡았다. 회장의 스푸데(σπουδή, 부지런함)은 조합의 화합-물론, 이것에 한정되지는 않았지만-을 위한 직무수행을 의미하였다. 바울은 신학적 이견으로 대립하는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화합하기를 바라면서 로마교회의 식탁 교제가 서로 용납하는 자리가 되기를 권면하였다. 바울이 열거하는 은사 중 ‘다스리는 자’는 자발적 조합의 회장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던 신자일 가능성이 크다. ‘다스리는 자’는 교회의 갈등에 신속히 대처하여 교회를 화합으로 이끌어야 한다. 바울이 말하는 “ἐν σπουδῇ”는 ‘다스리는 자’의 이러한 역할을 회장 자신에게 확인시키고 로마교회의 신자들에게도 상기시키는 바울의 의도된 표현이다.

<주제어>

로마교회, 다스리는 자, 그리스-로마의 자발적 조합, 공동식사, 스푸데, 부지런함/열정

<Key Words>

Roman Church, Leader, Greco-Roman Voluntary Association, Commensality, *Spoudē*, Diligence/Zeal

* 접수일 2021년 2월 28일, 수정일 2021년 3월 19일,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1일

-
- 66) 로마교회의 정황이 로마서 해석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있다. Scot McKnight, *Reading Romans Backwards: A Gospel of Peace in the Midst of Empire* (Waco: Baylor Univ. Press, 2019). 저자는 로마서를 전반부의 신학적 논의와 후반부의 윤리권고로 나누는 전통적인 로마서 이해를 거부하고 로마서 14장 이하가 반영하는 수신자의 갈등 정황에 대한 신학적 설득으로서 로마서 전반부를 해석한다.

참고문헌

- 박영호, “초기 교회 직제의 지역적 다양성에 관한 연구,” 「신약논단」 22 (2015), 1081-1122.
- 이상목, “로마서 12장 은사 단락이 지닌 공동체적 의미 - 로마교회 지도자들의 갈등과 바울의 일치 권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4 (2017), 55-82.
- 임진수, “그레코-로마 세계와 초기 기독교의 자선가 사상(euergetism),” *Canon&Culture* 8 (2014), 269-303.
- 조병수, “로마 세계에서 초기 기독교의 가옥 교회,” *Canon&Culture* 3 (2009), 91-122.
- 차정식, “음식과 식사的神學적 지형학-신약성서를 중심으로-,” *Canon&Culture* 2 (2008), 99-135.
- Ascough, Richard S., “Methodological Reflections on Synagogues and Christ Groups as ‘Associations’: A Response to Erich Gruen,” *JJMJS* 4 (2017), 118-126.
- , *What Are They Saying About the Formation of Pauline Churches?*, New York: Paulist Press, 1998.
- Ascough, Richard S., Harland, Philip A. and Kloppenborg, John S., *Associations in the Greco-Roman World: A Sourcebook*, Waco: Baylor Univ. Press, 2012.
- Aune, David E., *Prophecy in Early Christianity and the Ancient Mediterranean World*, Grand Rapids: Eerdmans, 1983.
- Barclay, John M. G., “‘Do we undermine the Law?’ A Study of Romans 14.1-15.6,” *Pauline Churches and Diaspora Jews*, Tübingen: Mohr Siebeck, 2011, 37-59.
- Barton, Stephen C. and Horsley, Greg H. R., “A Hellenistic Cult Group and the New Testament Churches,” *Jahrbuch für Antike und Christentum Münster* 24 (1981), 7-41.
- Byrne, Brendan, *Romans*,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7.
- Brill Dictionary of Ancient Greek*, 2015 ed., s.v. “σπουδή.”

- Dunn, James D. G., *Romans 9-16*, Nashville: Thomas Nelson, 1988.
- Eckhardt, B., "Who Thought That Early Christians Formed Associations?," *Mnemosyne: A Journal of Classical Studies* 71 (2018), 298-314.
- Fitzmyer, Joseph A., *Rom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C, New York: Doubleday, 1993.
- Gruen, Erich S., "Synagogues and Voluntary Associations as Institutional Models: A Response to Richard Ascough and Ralph Korner," *JJMJS* 3 (2016), 125-131.
- Harland, Philip A., *Greco-Roman Associations: Texts, Translations and Commentary, II. North Coast of the Black Sea, Asia Minor*, Berlin: De Gruyter, 2014.
- _____, *Associations, Synagogues and Congregations: Claiming a Place in Ancient Mediterranean Society*, Minneapolis: Fortress, 2013.
- _____, *Dynamics of Identity in the World of the Early Christians*, New York: T&T Clark, 2009.
- _____, "Honors by Soteriasts for Diodorous the Founder (37-35 BCE)," 2021.2.27, <http://philipharland.com/greco-roman-associations/honors-by-the-soteriasts-for-their-founder-37-35-bce/>
- Jewett, Robert, *Romans: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 Keesmaat, Sylvia C. and Walsh, Brian J., *Romans Disarmed: Resisting Empire / Demanding Justice*, Grand Rapids: Brazos, 2019.
- Kloppenborg, John S., *Christ's Associations: Connecting and Belonging in the Ancient City*, New Have: Yale Univ. Press, 2019.
- _____, "Associations, Christ groups, and their place in the Polis," *ZNW* 108 (2017), 1-56.
- _____, "Greco-Roman *Thiasoi*, the *Ekklesia* at Corinth and Conflict Management," Rom Cameron and Merrill P. Miller, eds., *Redescribing Paul and the Corinthian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1, 187-218.

- Kloppenborg, John S. and Wilson, Stephen, eds., *Voluntary Associations in the Greco-Roman World*, New York: Routledge, 1996.
- Kloppenborg, John S. and Ascough, Richard S., *Greco-Roman Associations: Texts, Translations, and Commentary, I. Attica, Central Greece, Macedonia, Thrace*, Berlin: De Gruyter, 2011.
- Korner, Ralph J., "Ekklēsia as a Jewish Synagogue Term: A Response to Erich Gruen," *JJMJS* 4 (2017), 127-136.
- Lampe, Peter, *Christians at Rome in the First Two Centuries: From Paul to Valentinus*, London: T&T Clark International, 2003.
- Last, Richard., *The Pauline Church and the Corinthian Ekklesia: Greco-Roman Associations in Comparative Context*,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2016.
- Lee, Jae Won, "Paul and Ethnic Difference in Romans," R. C. Bailey, T. Benny and F. F. Segovia, eds.,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9.
- Longenecker, Richard N., *Introducing Romans: Critical Issues in Paul's Most Famous Letter*, Grand Rapids: Eerdmans, 2011.
- Malherbe, Abraham J., *Paul and the Thessalonians: The Philosophic Tradition of Pastoral Care*, Philadelphia: Fortress, 1987.
- McLean, Bradley H., "Agrippinilla 비문: 종교적 모임(Associations)들과 초기 교회 형성," 양형주 역 「개혁주의 이론과 실천」 7 (2014), 171-198.
- McKnight, Scot, *Reading Romans Backwards: A Gospel of Peace in the Midst of Empire*, Waco: Baylor Univ. Press, 2019.
- Meeks, Wayne A., *The First Urban Christians*, New Haven: Yale Univ. Press, 1983.
- Nissen, Martti, "What is Prophecy? An Ancient Near Eastern Perspective," John Kaltner and Louis Stulman, eds., *Inspired Speech: Prophecy in the Ancient Near East: Essays in Honour of Herbert B. Huffmon*, New York: T&T Clark, 2004.
- Pliny, *Letters* Book 10, 2021. 2. 23, <http://www.attalus.org/old/pli->

ny10b.html#96

_____, *Letters* 10.96-97, 2021. 2. 22, <https://faculty.georgetown.edu/jod/texts/pliny.html>

Slingerland, H. Dixon, *Claudian Policymaking and the Early Imperial Repression of Judaism at Rome*, Atlanta: Scholars Press, 1997.

Smit, Peter-Ben, "A Symposium in Rom. 14:17? A Note on Paul's Terminology," *NovT* 49 (2007), 40-53.

Stadter, Philip A., "Leading the Party, Leading the City the Symposiarch as Politikos," J. R. Ferreira, et al., eds., *Symposion and Philanthropia in Plutarch*, Coimbra: Imprensa da Universidade de Coimbra, 2009, 123-130.

Verboven. Koenraad, "The associative order: status and ethos among Roman businessmen in Late Republic and Early Empire," *Athenaeum* 95 (2007), 1-31. [Preprint Version]

Wiefel, Wolfgang, "The Jewish Community in Ancient Rome and the Origins of Roman Christianity," Karl P. Donfried, ed., *The Romans Debate*, Peabody: Hendrickson, 1995, 85-101.

Yuh, Jason N., "Abandonment and Absenteeism in the Letter to the Hebrews and Greco-Roman Associations," *JBL* 138 (2019), 863-882.

<초록>

1세기 로마교회의 '다스리는 자'(롬 12:8)

-그리스-로마 사회의 자발적 조합 관점에서-

이상목

(평택대학교 연구교수)

초기 교회는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활발하였던 자발적 조합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물론, 교회만의 독특한 성격이나 새로운 변화가 있었지만, 자발적 조합과 교회의 유사성은 당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연스러웠다. 그리스-로마 사회의 자발적 조합은 직업자들을 선출하여 조합의 운영을 맡겼다. 조합의 주된 활동인 공동식사는 종종 다툼과 분열의 자리가 되었는데, 조합의 직업자, 특히 공동식사를 주관하는 회장은 이러한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책무를 맡았다. 이러한 직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업자는 조합을 위해 스푸데(σπουδή, 부지런함)를 보여준 것으로 칭송받았다. 회장의 스푸데는 조합의 화합--물론, 이것에 한정되지는 않았지만--을 위한 직무수행을 의미하였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열거하는 은사인 '다스리는 자'는 자발적 조합의 회장이나 이와 유사한 직업과 같은 직무를 수행했던 지도자를 가리킨다. 로마교회는 정결과 부정에 관한 신학적 이견의 충돌로 갈등을 겪었다. 불화하는 교회의 '다스리는 자'는 자발적 조합의 회장과 같이 교회의 갈등에 신속히 대처하여 회중을 화합으로 이끌어야 했다. 바울이 '다스리는 자'를 위해 권고하는 "ἐν σπουδῇ"는 공동식사에서 불화하는 회중을 평화로 이끌라는 권고를 담는다. 이 헬라어 부사구는 교회의 지도자와 회중 모두에게 '다스리는 자'의 책무를 상기시키며 그를 따르라고 말하는 바울의 의도된 표현이다.

<Abstract>

**‘The President/Presider’(Rom 12:8) of the
First-Century Roman Church: with respect to the
voluntary associations in the Greco-Roman society**

Sang Mok Lee
(Pyeongtaek University)

This article studies ‘the president/presider’ (ὁ προϊστάμενός, Rom 12:8), a charisma in the Roman church concerning the president, and its functions in voluntary associations in the Greco-Roman society. This research is based upon the finding that we observe similarities between the early church and the Greco-Roman associations; early Christianity developed its unique aspects. In the socio-cultural milieu of the Greco-Roman world, we can even consider those similarities to be reasonable. Voluntary associations elected officials and entrusted them with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o maintain the association’s development and concord. Since discord and quarrels were not uncommon at associations’ table fellowships, officials such as the president were supposed to oversee and keep communal peace in an association. ‘The president/presider’ of the Roman church has parallels with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The Roman church experienced internal discord over theological issues (Rom 14), and in this situation, Paul exhorts the president/presider to serve the church in diligence (*en spoude*). *Spoude* was the virtue for the president of an association to oversee and keep the association in harmony. The apostle asked the church’s president to pursue this virtue for the Roman congregation’s concord.